

清代 朝行錄 전승 현황과 특성*

김성남**

- I. 머리말
- II. 조행록의 전승 현황
- III. 조행록에 나타난 조선인식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청대 중국인이 남긴 조선 방문기 19종을 개관해보고, 그 전승 현황과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清代 조선 방문기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청 왕조의 전통적 사행을 수행한 사신들의 사행기록이며, 두 번째는, 19세기 말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면서 간섭이 강화되던 시기의 정치가와 군인들이 남긴 조선 방문기, 그리고 개항이 되면서 조선을 방문했던 상인이나 여행가들이 남긴 조선 견문록들이 있다.

清代에 저술된 전통 사행록은 5종에 불과하지만, 1882년과 1884년 사이에는 무려 13종의 조선 방문기가 출간되었다. 임오군란 등 정치적 목적과 시장 조사 등을 위한 방문이 증가하면서 전통적 朝淸 관계가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이 방문기들이 보여주고 있다.

• 주제어

조행록, 사행, 연행록, 조선방문기, 견문록, 한중관계, 조선인식, 임오군란, 갑신정변, 종주권, 조공체제, 19세기 조선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7-A00087).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I. 머리말

19세기 말 이전까지의 한중 관계는 대부분 使行의 왕래에 의해 수행되었다. 양국 간 공식적인 교류 시스템으로 정착했던 사행은 ‘동아시아 국제질서’라는 기본적인 체계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전통시대의 한중관계를 고찰하고자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역사의 현장은 바로 양국 간의 사행 왕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두 나라 사이에 이루어진 사행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조선이 남긴 사행기록인 燕行錄은 그 양적인 풍성함¹⁾과 더불어 많은 연구 성과물들이 축적되어 있다. 한국학 연구에서 연행록은 역사 전공자는 물론이고 문학, 한문학, 문화사 등 여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점하고 있다. 동아시아 외교의 역학 관계, 공식 비공식 국제 무역과 문화 교류, 학술교류 등 다양한 경험과 정보들이 망라되어 있는 기록유산이며, 생생한 현장을 담고 있는 사료의 보고이다.

이에 반해 중국 측 사행의 조선 방문 기록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한국사 연구자나 중국사 연구자들에서도 결코 활발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 사신들의 조선 방문기는 우선 그 양이 그리 풍성하지 못하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전통적 사행의 勅使가 아닌 제 3국과의 외교관계를 중재하기 위한 정치 외교관들, 상업적 목적을 가진 商務 인원들, 군대를 인솔하고 들어온 군인, 여행가 등으로 다양한 신분의 중국인들이 조선을 방문하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신분의 방문자들이 남긴 여러 종류의 방문기들이 출현하였다.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 주요 사건마다 정치적 임무를 받고 조선에 들어왔던 정치가와 군인, 혹은 상인들이 남긴 조선 방문기들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으나 아직까지 충분한 발굴과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韓中間에 이루어진 사행 왕래에 대하여 일찍이 수준 높은 연구 성과물²⁾들이 나와 있지만, 청대 전반에 걸친 조선방문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 성과물은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고는 여러 종류의 조선 방문기들을 ‘朝行錄’이란 용어

1) 현재 확인된 연행록은 총 537종이며, 清代에 377종이 기록되었다. 임기중, 『연행록연구』(서울: 일지사, 2006), 30쪽, 표2 참조.

2) 전해중, 『한중관계사연구』(일조각, 1970).

로 통일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조선 측 사행기록인 연행록은 명나라 때 중국을 다녀온 기록들을 대부분 朝天錄이라 하였고, 淸 왕조 시기는 연행록이라 하였으므로 이를 명과 淸 왕조를 구분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명나라 때 사행록을 연행록³⁾이라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원·명·청 왕조 때 중국을 다녀와서 쓴 글을 일반적으로 연행록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⁴⁾

중국 사신들의 사행록은 고려시대 송나라 사신 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을 비롯하여 여러 사행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최근 중국 학계의 明·淸 시기 조선 사행 기록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사행록들을 모은 영인본이 여러 권 출간되었다.⁵⁾ 이 역시 조선 사행을 수행했던 중국 사신들이 조선인 학자들과의 만남, 조선의 풍습과 문물, 여행기 등을 자유롭게 기록한 글들이다. 이 사행록들의 題名은 ‘奉使’ 혹은 ‘東游’, ‘東行’, ‘東使’ 등의 제목을 많이 달고 있는데, 본 글에서는 이 조선 방문기들을 시기와 내용의 구분을 두지 않고 통일하여 ‘朝行錄’이라 이름 하려고 한다. 이는 중국 방문기들이 일반적으로 ‘燕行錄’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조선 방문기들을 ‘朝行錄’이란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성과 편리함을 주기 때문이다.

清代 朝行錄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청 왕조의 전통적 사행을 수행했던 勅使들이 남긴 사행기록이며, 두 번째는 19세기 말 조선에 대한 중추권을 주장하면서 간섭이 강화되던 시기의 정치외교관이나 군인들이 남긴 조선 방문기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항이 되면서 조선을 방문했던 상인이나 여행가들이 남긴 조선 견문록들이 있다.

본고는 본 연구자가 현재까지 수집하고 정리한 19종의 朝行錄들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 그 전승 현황을 개관해보고, 시기별 조행록들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18세기 전반의 전통적 사행에서부터 19세기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변질되어 나가던 朝淸 관계와 조선에 대한 인식의 흐름이 조행록에 어떻게 투영되어

3) 『燕行日記』, 李馨郁(1605). ; 『燕行錄』, 李好閔(1609).

4) 임기중, 같은 책, 9쪽 참조

5) 殷夢霞·于浩가 편집한 『使朝鮮錄』 영인본이 北京圖書館出版社에서 2003년 출간되었는데, 『宣和奉使高麗圖經』, 『使高麗錄』, 『奉使朝鮮倡和集』, 『朝鮮紀事』, 『遼海編』, 『寶顏堂訂正方洲先生奉使錄』, 『朝鮮賦』, 『朝鮮雜志』, 『使朝鮮錄』, 『奉使朝鮮稿』, 『翰軒紀事』, 『東遊集』, 『奉使圖』, 『奉使朝鮮驛程日記』, 『東使紀事詩略』, 『東行三錄』, 『奉使朝鮮日記』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姜亞沙 등이 편집한 『朝鮮史料匯編』은 宋代의 『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부터 시작하여 元·明·清代를 총망라한 조선 관련 자료들을 모아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에서 2004년 출간하였으며, 李德龍·俞冰主가 편집한 『歷代日記叢鈔』가 2006년 北京 學苑出版社에서 출간되었다.

나타나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중국 자신이 새로운 국제 질서에 규정받으면서도 조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공 체제를 강요하는 이중적 정책을 유지하였던 대 조선 정책과 근대적인 외교 체제와의 긴장 관계를 이 시기의 조행록들이 잘 보여줄 것이다.

II. 조행록의 전승 현황

1. 전통적 사행 칙사들의 조행록

청 초기의 朝·淸 관계는 승전 신생국 淸의 위상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는 淸과 조선의 인식 격차가 매우 컸던 관계로 여러 차례의 갈등과 사건들이 벌어졌다. 이 시기 조선에서 파견된 연행길은 어렵고도 고된 여정이어서 연행록도 다른 시기에 비해 풍성하지 않은 편이다. 1636년에서 1641년 사이 기록된 연행록은 총 19편인데, 그 중 『瀋陽日記』라는 제호의 연행록 11편이 모두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도 사행 길의 수고를 짐작할 수 있다.⁶⁾

한편 이 시기 淸에서 조선에 파견한 사행원들의 朝行錄은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없으며, 朝·淸 관계가 비교적 안정기에 들어선 이후 최초의 기록으로는 孫致彌가 편집한 『朝鮮采風錄』이 있다.⁷⁾

1636년부터 1880년까지 245년간에 걸쳐 중국이 조선에 파견한 칙사는 169회로 연 평균 0.68회인데, 상당수가 淸 초기에 집중되어 있고 朝淸관계가 안정기로 접어드는 1766년부터 1880년 사이 115년간에는 31회에 불과하여 연 평균 0.3회 칙사가 파견되었다.⁸⁾

전통적 사행을 수행한 칙사들이 남긴 조행록은 5종으로 250여 년간에 걸친 朝淸 관계에 비하면 매우 빈약한 양이다. 이 5종을 내용과 성격에 따라 3종류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사행의 여러 장면들을 그림과 시로 남긴 阿克敦의 『奉使圖』와 『東遊

6) 임기중, 같은 책, 34쪽, 참조.

7) 孫致彌는 1678년 淸 황후의 부음을 전하는 일로 조선에 왔으며, 이때 『朝鮮采風錄』을 편찬했으나, 이 책은 이미 유실되어 원전을 찾아볼 수 없고, 王士禎의 『池北偶談』 卷十八에 채록한 시의 일부가 남아있다. 또한 그의 저서 『枕左堂詩集』 중 『奉使至朝鮮』에 시 4수가 남아 있다.

8) 全海宗, 『한중관계사연구』, 75쪽 참조.

記』이며, 둘은 19세기 전반의 전형적 사행기록인 柏菱의 『薛篔吟館鈔存』과 花沙納의 『東行記程』이다. 세 번째는 淸의 마지막 사행이 된 1890년 崇禮의 『奉使朝鮮日記』이다. 이를 표 1로 제시한다.

표 1 전통적 사신들의 조행록

	제호	저자	방문연도	방문목적	신분
1	東遊記	阿克敦	1722	책봉례	正使
2	奉使圖	阿克敦	1725	조문, 책봉례	正使
3	薛篔吟館鈔存	柏菱	1844	유제사	正使
4	東使記程	花沙納	1845	책봉례	正使
5	奉使朝鮮日記	崇禮	1890	유제사	正使

阿克敦은 康熙, 雍正, 乾隆 세 왕조를 거쳐 네 차례나 조선 사행을 온 인물이다. 1717년 숙종의 안질이 심하여 안질 약 空靑을 가지고 10월27일 조선에 왔으며⁹⁾ 11월5일 淸으로 돌아갔으나, 淸 태후가 서거하여 다시 1718년 1월2일 告訃使로¹⁰⁾ 사행을 오게 되었다. 그리고 1722년 王世弟 책봉례에¹¹⁾, 1725년 경종 조문 및 책봉례에 칙사로 왔다.¹²⁾

阿克敦은 세 번째 사행을 마치고 귀국 후, 세 차례 조선 사행에서 지은 시들 중 28 수를 가려 『東游集』¹³⁾을 편집했다. 그리고 1725년 네 번째 사행을 왔을 때 『奉使圖』¹⁴⁾ 20폭을 그렸으며, 이 그림의 매 화폭마다 『東游集』에서 자신의 시를 그림 내용에 맞추어 첨가했다.¹⁵⁾ 『奉使圖』 원본은 폭51cm, 길이 40cm의 충천연색 그림 20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선 사행길의 경관과 행사장의 모습들을 담고 있어 당시의 건축 양식과 服飾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전통 산대놀이 공연과 태극 문양의 기, 승례문, 연희도 등의 그림은 最古의 시청각 자료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19세기 전반의 사행기록인 柏菱의 『薛篔吟館鈔存』¹⁶⁾과 花沙納의 『東行

9) 『조선왕조실록』, 숙종43년 10월 27일.

10) 『조선왕조실록』, 숙종44년 1월 4일.

11) 『조선왕조실록』, 경종2년 5월 27일.

12) 『조선왕조실록』, 영조1년 3월 17일.

13) 阿克敦, 『東游記』, 『德蔭堂集』 卷6, 嘉慶21년(1816)刊本.

14) 阿克敦 編繪, 『奉使圖』, 北京民族圖書館藏(遼寧民族出版社, 1999).

원본은 현재 북경민족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999년 遼寧民族出版社에서 복제본을 출간했다.

15) 黃有福, 『奉使圖成書始末』, 『亞細亞文化研究』 제4집(2000), 49쪽.

16) 柏菱, 『薛篔吟館鈔存』, 淸 道光24년(1844)刻本.

記程』¹⁷⁾이 있다.

백준은 현종 9년(道光23년) 8월, 孝顯왕후가 서거하자 그 이듬해인 1844년 諭祭使로 조선 사행을 왔다. 『薛篋唵館鈔存』은 백준이 중국으로 돌아 간 직후 1844년에 바로 출간 되었는데 「序」에서 “이 책은 조선 出使 길의 거리와 견문들을 기재하고 있어 東藩의 경관들을 대략 알 수 있다. 이후 사행자의 안내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¹⁸⁾ 라고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침서가 되고자 귀국 즉시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것 같다.

花沙納은 1845년 현종의 왕비 책봉 시 正使로 조선 사행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행일정과 견문을 기록한 『東使紀程』을 1848년에 출간했다.¹⁹⁾

세 번째, 崇禮의 『奉使朝鮮日記』²⁰⁾는 1890년 뱃길을 이용한 마지막 사행으로 天津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입국하는 과정과 서울에서의 조문행사 후, 北京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일정을 일기체로 기록하고 있는 사행기록이다.

2. 1880년대 이후 정치외교관과 군인들의 조행록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독일 등과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조선과 청의 종속관계는 강화되고 변질되어 나갔다. 서구 열강과 일본의 조선 개입이 강화됨에 따라 淸의 정치외교관들과 군인들의 왕래가 증가하였고, 그들의 조행록들이 연이어 출간되었다. 1882년에만 4종의 조행록이 출간되었으며, 갑신정변과 청일전쟁 시기에 1종씩이 저술되었다. 이 6종의 조행록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정치외교관과 군인들의 조행록

	제호	저자	방문연도	방문목적	신분
1	東行三錄	馬建忠	1882	한미수호통상조약임오군란	정치외교관
2	桂之華軒遺集	朱銘盤	1882	임오군란	막료
3	東藩紀要	薛培榕	1882	임오군란	막료

17) 花沙納, 『東行記程』, 淸 光緒28년(1847)刻本.

18) 柏蔭, 같은 책, 「序」, “茲編謹志道里之遠近, 耳目之見聞, 俾東藩景物略見式斑, 爲後此賦皇華者先路”

19) 백준과 화사납의 두 사행록을 분석한 연구로는 구범진, 『19세기 전반 淸人の 朝鮮使行』, 『사립』 22호(2004) 참조.

20) 崇禮, 『奉使朝鮮日記』, 淸 光緒年間活字本. (1890).

4	奧穆朝鮮三鐘	周家祿	1882	임오군란	막료
5	皇華記程	吳大澂	1884	갑신정변	정치의교관
6	東遊紀程	聶士成	1894	청일전쟁	군인

1882년 4월 馬建忠은 한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시 조선을 방문하고, 일기체 기행문인 『東行三錄』²¹⁾ 즉 『東行初錄』, 『東行續錄』, 『東行三錄』 3편을 저술했다.

그리고 1882년 임오군란 시 吳長慶의 군대를 따라온 薛培榕, 周家祿, 朱銘盤의 조행록 3종이 있다.

吳長慶의 막료 薛培榕이 저술한 『東藩紀要』²²⁾는 전체 12권으로²³⁾ 지방의 지리를 모아 편집한 책인데, 萬鈞가 쓴 「序」에서 설배용이 오장경을 도와 군무를 처리하는 직무를 맡아 서울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어, 풍토를 이해하고, 산천을 조사하고 조선 정사와 병제, 호구, 물산 등을 조사하여 이 책을 편찬하게 되었다²⁴⁾고 이 책의 출판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만약 중국인이 조선에 간다고 하면, 단지 이 책만 지니고도 조선의 山川과 道里, 都邑, 園陵, 정치변혁, 위험요새, 物産 등의 각종 정황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다. 번역된 다른 저술들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²⁵⁾라고 말한 것처럼 중국인들에게 조선에 대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었다. 『東藩紀要』는 저술이 된 1882년에 바로 상해 申報館叢書로 출판 되었다.

또 다른 오장경의 막료인 周家祿의 『奧穆朝鮮三種』²⁶⁾은 「朝鮮世表」, 「朝鮮載記備編」, 「朝鮮樂府」 3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奧穆는 周家祿의 號이다.

朱銘盤 역시 오장경의 군대를 따라와 2년간을 조선에서 지내면서 『桂之華軒遺集』²⁷⁾을 저술했는데 ‘桂之華軒’은 주명반의 書齋이름이다.

이밖에 갑신정변 시 조선을 방문한 吳大澂의 『皇華紀程』²⁸⁾이 있다. 오대징은 갑

21) 馬建忠, 『適可齋紀行』(光緒22년(1896) 刻本); 馬建忠, 『東行三錄』(上海書店 影印本, 1982).

22) 薛培榕, 『東藩紀要』(上海: 申報館叢書本, 1882).

23) 12권의 목록은 1.建設通攷 2.朝鮮輿地圖, 朝鮮輿地說, 朝鮮分野 3.輿地, 沿江, 濱海, 營堡, 驛站, 道里說 4.八道八圖 4.朝鮮王城圖 王城圖說 5.八道府 州 縣距京道顯識 附山川, 郡名, 物産, 水陸眞道, 水陸路程 6.文武京官及八道守土官職 7.八道府縣城障制 八道烽燧 8.諸道兵艦總數 潮汐, 京外水陸騎步各軍 符信 9.頒祿 章服 度量衡制 戶口 田結 田賦 雜稅 漕運 鑛山 錢法 10.曆年參考 11.節錄會通條例 12.朝鮮風俗記 附 通商條例이다.

24) 薛培榕, 같은 책, 1冊, 「序」.

25) 薛培榕, 같은 책, 1冊, 「序」. “中國人民之有事於朝鮮者俾挾一編以往則凡山川道里都邑園陵與夫政教之變革關塞之扼要物産之豐阜皆可一覽而盡則不必訪諸象譯.”

26) 周家祿, 『奧穆朝鮮三種』, 清光緒年間刻本.

27) 周銘盤, 『桂之華軒遺集』, 近代中國史料叢刊, 第1輯(台北: 文海出版社, 1966).

28) 吳大澂, 『皇華紀程』, 殷禮在斯堂叢書(東方學會鉛印暨石印本, 1928년), 第7冊.

신정변이 발발하자 朝鮮辦事大臣을 임명받고 조선에 들어 왔으며, 1885년 欽差大臣으로 임명되어 琿春과 러시아 변경지역을 답사하고 『皇華紀程』을 출간했다.

또, 聶士成的 『東游紀程』²⁹⁾이 있는데, 그는 1894년 청일전쟁 시 제독 葉志超를 수행하여 조선으로 들어와 전쟁에 참여하였다. 그가 저술한 『東游紀程』은 동북지역과 조선의 중요 군사지역을 조사한 기록이다.³⁰⁾ 『서문』에서 徐宗亮은 “섭사성은 8개월의 시간 동안 왕복 2만여 리를 여행하고 돌아와 『東游紀程』을 완성하였다.”³¹⁾라고 이 책의 발간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1883년 9월 奉天을 거쳐, 吉林, 黑龍江 변경지구와 러시아 관할 지역인 伯利, 海參威 등지를 순회하고서 1894년 조선에 들어와 함경남도 鏡城, 함경북도 吉州, 원산, 부산, 인천 등 조선 전국을 다니면서 주요 군사 지역을 관찰하고 이를 지도로 완성 한 것이 바로 『동유기정』이다.

3. 商務, 여행가들의 조행록

1882년 朝中 商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되면서 商務 관리들과 민간인들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들의 저술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조행록 8종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商務, 여행가들의 조행록

	제호	저자	방문연도	방문목적	신분
1	東遊記	吳鍾史	1882	商務	上海招商總局관리
2	游高麗王城記	吳鍾史	1882	商務	上海招商總局관리
3	朝鮮風土述略	吳鍾史	1882	商務	上海招商總局관리
4	高麗形勢	吳鍾史	1882	商務	上海招商總局관리
5	入高記程	미상	1882	商務	관리
6	朝鮮風土記	미상	1882	商務	관리

29) 聶士成, 『東游紀程』, 光緒21년(1895) 石印本. 전 4卷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1과 권2는 日歷, 권3은 圖說, 권4는 道路表와 附圖이다. 『朝鮮溫貴海口圖』, 『朝鮮鏡城地勢圖』, 『朝鮮吉州海口圖』, 『朝鮮元山海口地勢圖』, 『朝鮮釜山海口地勢圖』, 『朝鮮仁川海口租界圖』, 『大同江口地勢圖』, 『鴨綠江口地勢圖』 등의 지도가 첨부되어 있으며, 정밀한 등고선을 사용한 지형도와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 있다. 또한 『東省與 韓俄交界道裏表』 중에는 중국 琿春에서 길주-함흥-원산-제물포-한성-의주-압록강-구연성을 거치는 상세한 노선이 나와 있다.

30) 그는 光緒 19년(1893), 山西 太原鎮總兵官을 임명받아 直隸에 머물던 중, 관원을 파견하여 동부 변경 지역을 순회하게 한다는 논의가 있자, 직접 이홍장에게 이일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지도 제작의 임무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31) 聶士成, 같은 책, 券3, 16쪽. “凡歷八閱月, 往返二萬余里, 而歸成 『東游紀程』 二卷.”

7	高麗風俗記	미상	1882	商務	관리
8	朝鮮雜述	許午	1884	여행	문인

1882년 초, 上海 招商總局에서는 초상국원 5명을 마건충과 동행시켜 통상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하게 하였다.³²⁾ 이때 파견된 吳鍾史는 上海 招商總局 관리로 조선의 상업 현황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아 『東游記』³³⁾라는 일기체 형식의 조행록과 『游高麗王城記』, 『朝鮮風土述略』, 『高麗形勢』를 저술했다.³⁴⁾

이외에 작가 미상의 『入高紀程』³⁵⁾과 『朝鮮風土記』³⁶⁾, 『高麗風俗記』³⁷⁾가 있는데, 『入高紀程』은 天津에서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한 조영하 일행과 함께 ‘興盛輪’을 타고 해상 항로를 따라 인천으로 입항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고, 나머지 2종도 서울의 시장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上海 招商總局의 일원이 저술한 것으로 추측된다. 『入高紀程』이라는书名에서 ‘高’는 ‘高麗’를 말하며 『高麗風俗記』를 비롯하여 조선을 고려라고 호칭한 제호들이 많은 것을 보아 19세기 말까지에도 중국인들이 조선을 고려와 혼용하여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許午의 『朝鮮雜述』³⁸⁾은 여행을 목적으로 조선을 방문했던 한 개인의 조행록이다. 저자 許午는 서문에 “光緒 甲申10년(1884) 봄, 나는 조선으로 여행을 갔는데, 乙酉(1885), 丙戌(1886) 봄에 내가 보고들은 건문의 대략을 아래에 기술한다.”³⁹⁾라고 저술의 목적과 연도를 명시해 두었다. 그는 조선에 2년을 머물면서 이 여행 잡기를 썼는데, 서울의 건물들과 왕궁, 관복, 유생, 과거, 士人, 農田, 병정, 어선, 노비, 창기, 술집, 부녀 등을 기술하고 있다.

32) 馬建忠, 『東行初錄』, 壬午 3월 24일 참조.

33) 王錫祺編, 小方壺齋輿地叢鈔再補編(上海著易堂, 清光緒23年(1897))에 수록되어 있으며, 1985년 杭州古籍書店에서 영인본이 출간되었다. 한국에서도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 자료들을 모은 朴現圭, 『19세기 중국에서 본 한국자료』-청말 王錫祺 『小方壺齋輿地叢鈔』 중 韓國 地域學 文獻이 아세아문화사에서 1999년 출간되어 있다.

34) 王錫祺編, 같은 책에 수록되어 있다.

35) 王錫祺編, 같은 책, 第10帙.

36) 王錫祺編, 같은 책, 第10帙.

37) 王錫祺編, 같은 책, 第10帙.

38) 王錫祺編, 같은 책, 第10帙.

39) 王錫祺編, 같은 책, “光緒甲申十年春, 余游朝鮮, 曆乙酉, 丙戌春, 於所見聞略述其大概.”

Ⅲ. 조행록에 나타난 조선 인식

1. 전통적 사행의 입국 경로 변화와 조선 인식

Ⅱ장에서 살펴 본 아극돈과 백준, 화사납의 조행록은 18. 9세기 전반 전통적 사행을 수행했던 칙사들의 전형적 사행록으로 주요 내용은 조선으로의 입국과정과 접대 내용, 조선에서 행한 禮典들, 그리고 조선 문인들과 나눈 交遊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崇禮의 『奉使朝鮮日記』는 전통적 관계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사행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조행록이다.

전통적 사행 노정은 육로로 義州에서부터 평양, 개성을 거쳐 한성으로 입경하는데 대략 보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 노선⁴⁰⁾이었지만, 1890년 崇禮의 조선 사행은 뱃길을 이용한 路程이었다. 그들은 9월17일 北京을 출발하여 天津에서 北洋軍 운함을 타고 24일 인천에 도착하여, 25일 한성으로 입경하였다.

1890년, 신정왕후가 서거하자 조선은 그때까지의 전통관례에 따라 청에 대왕대비 서거를 알리면서 조선의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음을 설명하고, 청 조문 사절들에 대한 접대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諭祭使를 파견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는 淸의 弔勅使를 국왕이 교외에까지 나가서 영접해야 하는 관례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그러자 청은 이렇게 대응한다.

조선국왕은 대대로 東藩으로 조정의 특별한 예우를 받아왔다. 조문사절을 파견하는 것은 규정된 관례이니 응당히 계속 시행을 해야만 하며 변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天朝가 藩屬에게 베푸는 특별한 은전이며, 번속 관계의 체제이니 어찌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러나 특별히 조선이 근년에 국가 재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이전의 격식을 지키면서 융통성 있게 처리하도록 한다. 이전에 조선에 파견하는 사신은 모두 동쪽의 육로를 이용하여 조선으로 들어갔는데, 이 길에는 여러 역들이 있고 연도에서 사단의 경비를 제공해 주어야하므로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이번에 파견하는 사신은 노선을 변경하도록 명한다. 天津에서 북양 해군 배를 타고 직접 인천으로 들어간다. 조문이후 다시 이 노선으로 돌아오도록 한다. 이렇게 변경을 하면, 조선으로 들어가는 길이 비교적 가까워 이전에 육로로 가는 것에 비해 비용을 절감

40) 백준과 화사납의 조선 사행 노정과 접대와 예단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구범진, 『19세기 전반 청인의 조선사행-백준(1844년)과 화사납(1845년)의 경우』, 『사림』22집(2004) 참조.

할 수 있다. 欽差사신은 조선에 도착한 이후, 응당히 禮典을 진행하되 낭비하지 않으면서 전 과정의 章程을 준수해야만 하며, 마음대로 간략히 할 수 없다.⁴¹⁾

라며 2차적인 방법을 강구하면서까지 조문사절을 파견하는데, 조선이 여전히 청과의 사대질서를 지키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특별히 중시하게 된 것이다. 이때 袁世凱는 이홍장에게 “조선의 뜻은 추측컨대 실은 弔使를 사절하는 것이 아니고 郊迎의 禮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재정의 곤란은 사실이나 淸使 접대의 비용이 없다는 말은 다만 구실에 지나지 않으니, 결코 이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번 일은 조선이 우리의 藩屬으로 인정되어 列國의 羞辱을 받을까 두려워 하기 때문인즉, 우리는 마땅히 조선국이 藩屬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⁴²⁾

조선 정부는 이에 沈履澤을 遠接使로, 戶曹判書 閔詠商을 迎接使로 임명하고,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했다. 청 정부는 조선의 접대규모와 형식을 특별히 중시하는데, 袁世凱는 만약 조선정부가 전례의 관례에 따라 국왕이 친히 성문으로 나와 영접하지 않는다면 칙사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조선은 국왕이 친히 郊迎의 예를 행하게 되었으며, 칙사가 떠날 때도 종친백관들과 함께 敦義門에서 이들을 배웅하는데, 승례는 이 과정을 『奉使朝鮮日記』중에 자세히 기술하여 두었다. 또, ‘賜奠禮’를 진행하였던 승례가 지은 4수의 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보면

捧詔遙臨典禮申. 황제의 조서 받들어 내리신 제례를 집행하였네,
舊章無闕見情眞. 옛 격식에 따라 완전히 집행하니 이는 조선의 진심을 나타냄이라.
.....
下車若問蒼生樂, 이곳에 오니 모든 백성들이 반기고,
郅屋咸呼萬歲晨. 가난한 집들에서도 모두 황제의 만수 비는 소리 가득하다.⁴³⁾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배를 타고 인천을 통해 입경했지만, 의전문제

41) 趙爾等撰, 『淸史稿』(北京: 中華書局, 1997) 48冊, 『朝鮮傳』, 卷526, 14610-14611쪽. “朝鮮告計使臣具呈 懇請免遣使賜奠一摺, 所陳困苦情形, 自非虛飾. 推國王世守東藩, 備叨恩禮, 弔祭專使, 載在典常, 循行勿替, 此天朝撫恤屬藩之異數, 體制攸關, 豈容輕改? 特念朝鮮近年國用窮乏異常, 不得不於率循舊章之中, 曲加矜恤. 向來遣使其國, 皆由東邊陸路, 計入境後, 尚有十餘站, 沿途供億實繁. 此次派往大員, 著改由天津乘坐北洋輪船, 徑至仁川登岸, 禮成, 仍由此路回京. 如此變通, 則道途甚近, 支應無多, 所有向來陸路供張繁費, 悉行節省.”

42) 김한규, 『한중관계사』(아르케, 1999), 873쪽 참조.

43) 崇禮, 『奉使朝鮮日記』, 四十三쪽.

에 있어서만큼은 이전과 차이를 두지 않고 집행되었다는 점과 조선의 청에 대한 禮典도 다름없다는 점이다. 崇禮가 이 ‘賜奠’ 즉, ‘황제가 내리신 제전’의 사명을 “옛 격식에 따라 완전히 집행”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시인데, 조선에서 여전히 청의 사대질서가 온전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사행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시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조선의 진심이며 조선 백성들이 모두 청을 환영한다는 점을 승례는 특히 강조하였다. 이 弔勅使를 마지막으로 청과 조선의 전통적 禮典관계는 종결되었다.

2. 다중 시선이 그려내는 1880년대의 조선

1882년을 전후로 하여 정치 외교관과 군인들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의 조행록 역시 1882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이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한 것은 조선 사회의 정치 상황과 사회 현상, 그리고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다.

먼저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임오군란 시 오장경의 막료로 조선을 방문했던 주가록의 『奧移朝鮮三種』의 『朝鮮樂府』에는 조선의 정치 상황과 인물들에 대한 10수의 시⁴⁴⁾가 있어 당시 중국 관료들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근래 조정은 개화와 수구 양당으로 분리되어있다. 개화당 중에는 또 중국당과 일본당이 나뉘어져 있으니, 조선의 禍亂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⁴⁵⁾라고 조선의 정치 현실을 분석하면서 “조선은 정말 위험하구나. 오호! 이는 어찌 조선만의 위험이겠는가.”⁴⁶⁾라는 이 시는 조선의 위험이 바로 중국의 위험이라는 그들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주명반은 조선에서 오장경의 문건 작성하는 일을 하면서, 청이 체포해간 대원군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한 편의 시로 남겼다.

興宣攝政時, 흥선 대원군 섭정 할 때,
西虜來寇邊. 서양인들이 변경을 어지럽히자.
興宣驅虜卒. 흥선 대원군 병약한 군대 일으켜,

44) 10수의 시는 長湖村, 昌德宮, 大院君, 南壇山, 罪己教, 陳情表, 仁川口, 三軍府, 賣國碑, 守舊黨이다.

45) 周家祿, 『奧移朝鮮三種』, 21쪽. “近年來朝士有開化 守舊二黨, 開化之中, 又分中國日本黨. 黨人之禍遂與國是相終始矣.”

46) 周家祿, 『奧移朝鮮三種』, 84쪽, 『守舊黨』, “朝鮮其危矣哉嗚呼豈獨朝鮮也哉.”

一鼓摧中堅. 단숨에 몰아 승리 쟁취하였네.

乃知克西虜, 서양 도둑 몰아낸 줄 알고는

不在鐵作船. 철갑 전함 유념치 않았구나.

.....

厥志雖不成. 흥선의 웅지 비록 이루지 못하였지만,

君子嘆其賢. 군자는 그의 지혜를 감탄하도다.

대원군에 대한 또 한 편의 시가 있다. 주가록은 『大院君』이라는 시에서 “외국과의 왕래를 단절하고 외국으로부터의 모욕을 방어한 십년 사이는 일본의 침범이 없었다.”⁴⁷⁾, “대원군이 국정을 집권했을 때,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은 모두 법을 잘 지키고 용감하며 명령에 복종하였다.”⁴⁸⁾ 라고 쓰고 있다.

나라를 지키며, 병약한 군대로 외세를 몰아냈던 대원군의 기지와 지혜를 높이 사면서도 그를 임오군란을 선동하였다하여 납치해간 것이 청의 정책이기도 하였다. 대원군에 대한 그들의 이중적 인식의 내면이 잘 드러나 있는 시이다.

임오군란에 대응하여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廣東水師 제독 吳長慶에게 3,000군대를 인솔하여 淸州에서 출발하여 조선으로 가게 하였는데, 이를 授護之師라 칭하였다. 7월 4일, 배를 타고 3일 후에 조선에 도착하였으며, 10일 후에 그 원흉을 잡아 天津으로 보내었다. 이어서 남은 잔당들을 체포하고 왕비가 돌아와 조선 국왕의 왕위가 보전되어 온 나라가 기뻐하며 중국의 再造之功을 칭송하였다. 난당을 평정하고 개선 한 후, 조정은 조선의 군대가 이미 붕괴한 것을 고려하여 일본이 틈을 엿보아 다시 반대자들을 선동하면 진압 할 수 없을 것을 염려하여서 오장경에게 조선에 남도록 명하여, 3,000군대를 나누어 한성 내외에 주둔하게 하니 모두 6개의 군영이었다. ... 우리 황제가 특별히 東藩을 염려하여 조선 국왕이 보위를 보존하도록 전심전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군신과 대소 관원들은 눈앞의 안일만을 탐하여 급박한 우환이 있음에도 문을 열어놓고 도둑에게 절하며, 점점 더 동서 양인의 유혹을 받고 있다. 자주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더욱 일본에 예속되고 있다. 오, 조선국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⁴⁹⁾

47) 周家祿撰, 같은 책, 71쪽 “首絕外交御外侮, 十年不見東倭塵”

48) 周家祿撰, 같은 책, 72쪽, “太公當年柄政日, 衛士奉法勇且馴.”

49) 周家祿, 『輿移朝鮮三種』, 55-56쪽. “朝命廣東水師提督吳長慶自淸州以三千人往, 名曰授護之師. 七月初四日, 杭海, 三日而抵其境. 十日而罪人斯得, 歸之於天津. 仍分兵捕治余黨, 迎復王妃, 鍾虞不移, 廟社如故, 舉國欣欣頌再造功. 亂黨既平, 王師凱旋, 朝廷念朝鮮兵制隳壞, 倭人窺伺, 慮不逞之徒扇構爲變, 不可無以鎮懾之. 命長慶留兵防堵, 三千人分屯漢城內外, 爲六營, ... 聖天子瞻顧東藩, 所以爲朝鮮宗社計無微不至. 而君臣上下, 坐享宴安, 厝火積薪, 開門揖盜, 漸且惑於東西洋人之言, 以自主爲名, 欲背周而從楚. 噫! 國亡無日矣.”

청은 임오군란이 발발하자 오장경의 군대를 파견하여 임오군란을 진압하고 대원군을 납치하였으며, 대원군의 아들 훈련대장 이재민을 구금하고, 난당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청군을 출동시켜 조선 군인들이 거주하던 왕십리와 이태원 일대를 습격하여 군민들을 체포·처형하였다.⁵⁰⁾ 그 후에도 慶軍 3,000명을 그대로 조선에 주둔시켜 조선 정부를 감시하면서 종주권을 강화하였다.

그 임무를 수행한 주가록이 ‘조선이 임오군란의 진압을 위해 출동한 중국군대를 授護之師라 칭하였으며, 우리 황제가 특별히 조선을 염려하여 조선 국왕이 보위를 보존하도록 전심전력을 다하였다.’는 글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그의 모순적 인식들 속에서도 일본에 대한 염려와 조바심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문장이다.

3. 국제질서와 ‘藩屬國’ 조선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제국주의 열강과 조약을 맺어 만국공법적 질서 체제로 편입되어 새로운 국제 질서에 규정받으면서도 기존의 ‘藩屬國’ 조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공 체제를 강요하는 이중적 정책을 유지하여 근대적인 조약 외교 체제와의 긴장 관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갑신정변은 종주권을 유지하려는 중국과 일본 간의 충돌이 더욱 가열되는 시점이 되는데, 이때 오대징은 朝鮮辦事大臣을 임명받고 조선으로 오게 되었다. 11월 12일 황제가 그에게 내린 유지이다.

조선의 亂黨은 光緒8년(1882) 가을에 평정되었는데, 그 싹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일본의 속심을 헤아리기 어려운데, 지금 또 갑자기 싸움거리를 만들었다. 일본이 중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충돌을 이용해 기회를 만들어 분쟁을 만들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일들이 서로 중대하게 관련되어있으니 특별히 이 일을 엄밀하게 처리해야만 한다. 李鴻章과 吳大澂이 함께 이 일을 잘 처리하도록 명한다.⁵¹⁾

갑신정변을 잘 처리하라는 명을 받고 조선에 온 오대징은 12월 4일 다음과 같은 상주문을 올렸다.

50) 김종원·이양자, 『조선후기 대외관계 연구』(한울, 2009), 206쪽; 김한규, 『한중관계사』, 845쪽 참조.
51) 『淸實錄』, 『光緒實錄』, 卷196, 第54冊, 788면. “諭軍機大臣等, 据李鴻章電陳, 朝鮮又有內亂, 似有日人播弄主持, 擬派員查辦等語. 朝鮮亂黨, 自八年秋間勘定, 萌芽尙未盡絕. 日人意存叵測, 現又突起釁端. 難保不因中法有事, 何隙弄釁, 事關重大, 亟應嚴密籌辦. 着派李鴻章·吳大澄會同規畫一切事宜.”

일본사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조선에 온 후, 조선과 직접 협약을 맺고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다. 오대징에게 主權이 없다고 말하며 창졸간에 귀국해버렸다. … 특별히 주의해야만 하는 것은 일본이 이번에 우리나라와 상의하지 않은 것은 즉 조선이 우리의 속국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빌미로 다시 분쟁을 일으켜 우리가 조선의 사정을 간여하는 일을 방해하면 조선은 월남이 번속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전철에 다시 빠질 수가 있으니, 이는 매우 중대한 우환이 될 것이다.⁵²⁾

갑신정변 이후 청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天津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오대징은 전권대신 이홍장과 함께 副大臣을 임명받아 조약체결에 참여하였다. 오대징은 『皇華紀程』에서 조선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세에 대한 긴장된 시선을 여러 차례 서술하고 있다. 러시아와 조선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며 쓴 시이다.

防患尤宜策未然, 우환을 막으려면 미리 좋은 방안을 내야만 하는데,
強鄰漸與外藩連. 강대 이웃 러시아와 외번 조선은 점점 더 밀접해지느구나.
自註: “俄人所占黑頂子地方與朝鮮僅隔圖門江一水, 有覬覦小邦之意.”
러시아가 점거한 黑頂子 지방과 조선은 단지 한 줄기 도문강으로 나누어져 있을 뿐이니, 러시아가 조선을 넘보는 야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⁵³⁾

서구 열강에 대한 경계심도 이 시기 조행록들의 특징인데, 주가록은 원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永興灣은 지형이 해를 바라보고, 많은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엄동설한에도 물이 얼지 않아 부두를 만들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각국이 모두 이곳을 점령하고 싶어 한다. … 조선에 일단 일이 발생하면, 원산, 영흥은 반드시 서양인들이 먼저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군신들은 유약하고 힘이 없어, 문을 열어주면서 도둑을 영접하는 격이니, 그들은 진정 어떻게 하려는가.⁵⁴⁾

聶士成은 『東游紀程』에서 일본 군함들이 조선의 주요 항구마다 들어와 정탐하

52) 『清實錄』, 『光緒實錄』, 卷199, 第54책, 824면. “日本使臣井上馨到朝鮮後, 徑與該國定約, 並未向吳大澂商量一切. 僅稱因該京卿無全權字樣, 倉猝回國. … 特恐籍此次未商, 遂謂朝鮮非我屬國, 繼此再造弊端, 卽以此謂口實, 阻我過問, 致陷越南故轍, 則隱患實大.”

53) 吳大澂, 『皇華紀程』, 12쪽.

54) 周家祿, 같은 책, 『朝鮮載記備編』, 17-18쪽. “永興灣地形向陽, 衆山環抱, 海水嚴寒不冰, 其地可築船塢, 英法俄美諸國皆垂涎之. … 朝鮮一旦有事, 元山 永興必先爲西人占奪, 而君臣泄泄, 開門揖盜, 誠不解其何心也.”

고, 크고 작은 해안마다 일본인들이 모두 지도를 측량하고 도로를 조사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있다. “조선이 비록 미리 대비할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藩屬을 강화하고, 邊疆을 보호해야 하니, 응당히 상황에 따라 미리 잘 준비해야만 한다.”⁵⁵⁾라는 기록이 바로 『東游紀程』의 저술 목적을 말해준다. 섭사성의 이 동북지구 시찰이 바로 변속 관계를 유지하고 변경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로 실제 행동에 들어간 것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경계와 조선의 종주권에 대한 청의 조바심은 『東游紀程』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조선에 난리가 일어나 여전히 중국이 파병하여 보호를 해주어야하니 매우 위험한 일이다. 여러 나라들과 통상조약을 맺은 이후, 3개의 항구인 인천과 원산, 부산을 개항하였다. 처음 개항하였을 때는 무역이 활발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화물 유통과 상무인원들이 많아졌다. 일본인들의 기세가 흥흥하여 각종 조건들을 요구하며 도처에서 위협적으로 자리하고 있으니, 이 모두가 중국을 멸시하는 태도이다. 일본이 ‘조선조약’을 맺으면서 제 1조에 ‘대조선은 자주 국가이다’라는 것을 명시하였으니, 이 모두 중국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다.⁵⁶⁾

갑신정변 이후 淸과 일본 사이에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淸은 조선에 대해 한층 더 심각한 내정·외교상의 간섭을 강화해 나갔다. 당시 한반도 정책을 주도했던 李鴻章은 청의 안위를 위해서는 대만이나 월남과 버마 등의 조공국가들 보다 조선이 전략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을 침략하면 이는 중국에게 근본적 우환이 될 것이니 그 뿌리를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인식을 깊게 갖고 있었다.⁵⁷⁾

이러한 이홍장의 정책과 인식들이 聶士成的 『東游紀程』을 비롯한 오대징의 『皇華紀程』 등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55) 聶士成, 『東游紀程』, 卷3, 15쪽. “雖然彼即不知早爲之計而我之固藩屬保邊疆者自當因時制宜而作先發之舉也”

56) 聶士成, 같은 책, 『游韓管見』, 권3, 제4冊, 14면. “有事仍需中國派兵保護, 實可危也. 自與各國立約通商以後, 開有三埠: 一仁川, 一釜山, 一元山. 生意初設, 不甚興旺. 近時貨物通行, 商務均大有起色. 惟日人甚盛, 種種要挾, 處處占先, 頗有藐視華人之意. 且朝日約章首句云: 大朝鮮爲自主之國. 窺其意, 一似朝鮮亦於中國不相干涉者.”

57) 『李文忠公朋僚函稿』, 券24, 臺灣近代史資料叢刊影印本, 22면 참조. “東方根本之患, 根本切近憂”

4. 조선 문인들과의 교류와 조선 사회에 대한 관심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朝淸 간의 사행이 이루어졌지만 이 통로는 양국 학자들에게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었으며, 청의 사신들과 조선의 文士들은 개인적으로 교류하며 시와 우정을 나누기도 하였다. 柏蔭의 조행록 『薜蘿唵館鈔存』에는 그가 한성에 머물고 있는 기간 중 “글씨를 써 달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찾아와서 그들을 응접하느라 여가가 나질 않았다.”⁵⁸⁾라는 기록이 있고, 花沙納도 『東使紀程』에 “求書索扇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亥時까지 등불을 밝힌 채 글씨를 썼고, 글씨를 써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 피곤했다는 글들이 여러 차례 보인다.⁵⁹⁾

『薜蘿唵館鈔存』에는 백준이 사행 기간 중에 쓴 紀行詩 36수가 있는데, 그 중에는 원접사 조병현과 창화 한 시 4수⁶⁰⁾가 있으며, 差備官 李尙迪과의 창화시 3수⁶¹⁾도 수록되어있어 이들이 함께 시문을 나누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백준은 이 조선 사행에서 이상적과 우정을 맺고 귀국 후에도 서신을 계속 교환하였다. 이상적이 청의 문인들에게 받은 서신들을 모은 『海鄰尺素』에 백준이 보낸 서신 2통이 있으며, 그의 문집 『恩誦堂集』에 백준과 나눈 次韻詩 3수와 백준을 생각하며 쓴 『懷栢靜壽侍郎』 등이 수록되어있다.⁶²⁾

또 花沙納은 조선 문인 徐慶淳에게 시 한 수를 지어 보냈다.

“尙書 송잠(松岑) 花沙納이 칠언 절구 한 수를 나에게 주었다.

昔年奉使赴東瀛 옛날 사명을 받들고 동영에 가서
偶爾題詩付驛程 우연히 시를 써서 역마 길에 붙였었네
自愧如何文潞國 부끄럽노라 문 노국에 어찌한단 말인가
海邦人士尙知名 바다 나라 인사가 오히려 이름을 안다니.

조선 서해관(徐海觀) 낭중이 공사를 따라 경도에 올라와 방문하므로 시로 사례하노라. 咸豐乙卯 12월 12일 송잠 화사남.”⁶³⁾

조선 사행을 수행했던 正使 花沙納이 조선 종사관 서경순에게 보낸 이 검손한

58) 柏蔭, 『薜蘿唵館鈔存』, 22쪽.

59) 花沙納, 『東使紀程』, 35-38쪽.

60) 창화시 4편은 「渡鴨綠江」, 「東林賦」, 「林畔館」, 「遠接使趙羽堂秉鉉索和」이다.

61) 창화시 3편은 「淸川江」, 「差備官李藕船尙迪索贈」, 「重宿新安館」이다.

62) 한국학문헌연구소편, 『恩誦堂集』(서울아세아문화사, 1983).

63) 徐慶淳, 『夢經堂日史』(민족문화추진회, 1977), 379쪽.

시와 正使 백준과 조선 譯官 이상적과의 교류 등은 19세기 중반까지 한중간에 이루어졌던 전형적인 문화교류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역시 정치적 관계 이면의 조행록이 보여주는 조선 인식의 한 부분이며, 조선의 지식 생성과 소비에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다.

1882년 上海 招商局의 관리가 저술 한 것으로 추측되는 『高麗風俗記』와 『朝鮮風土記』는 조선 사회 전반의 문화와 풍습,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농후한 조행록이다. 조선 사대부에 대한 아래 기록은 한국인의 정서를 비교적 정확히 관찰하고 있는 듯하다.

조선 사대부 대부분은 옛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규율을 여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다. 고루함에 머물러있다는 것을 자신은 모르고 있다. 특별히 자신의 나라를 존중하고 외국인을 경시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논쟁하기를 대단히 좋아한다.⁶⁴⁾

조행록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1884년 관광을 목적으로 조선을 방문했던 許午는 『朝鮮雜述』을 저술했다. 그는 조선이 기자와 고구려를 거쳐 신라, 고려까지는 강성한 국가였으나 지금은 이미 쇠약한 나라로 낙후하였다고 하며, 그 원인을 너무 유학에 의존하여 文만 숭상하고 武를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詩經』과 『尙書』의 경문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데 이 모든 것이 유학에 너무 의존한 연유이니, 서둘러 武를 육성해야한다고 조선 문제에 관한 해결방법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고구려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이다. 許午가 강성한 국가였던 고구려가 조선에 와서 쇠약해 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주명반도 『桂之華軒遺集』의 「贈王伯恭」⁶⁵⁾ 시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隋唐以來高句麗, 수와 당 때의 고구려,
士馬強富雄東陲. 병사와 말이 건장하니 동방의 영웅이라 불렀다네.
李氏有國五百載, 이조 건립 오백 년,
爾來文弱空支持. 이제 문약하니 자신을 지키기 어렵구나.

64) 王錫祺編, 『高麗風俗記』, “高麗人士大率不喜破除舊習, 開創新見, 自安固陋而不惜, 且於尊崇己國, 輕視外人之意, 尤斷斷特甚.”

65) 周銘盤, 『桂之華軒遺集』, 142쪽.

중국인의 인식 속에 고구려가 매우 강성한 나라였으며, 조선이 고구려의 후예라는 점을 이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조행록들을 종합하여 정리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조행록 전승현황

분류		전통사행	정치외교	商務 여행	합계
종수		5	6	8	19
작가	확인	5	6	5	16
	미확인			3	3
연도	1720년	2			2
	1840년대	2			2
	1882년		4	7	11
	1884년		1	1	2
	1890년대	1	1		2
방문 목적	책봉례	3			3
	유제사	2			2
	통상조약체결		1		1
	임오군란		3		3
	갑신정변		1		1
	商務			7	7
	여행			1	1
신분	국토탐사		1		1
	사신	5			5
	정치외교관		2		2
	군인		1		1
	招商總局관리			7	7
	막료		3		3
	문인			1	1

표 4를 살펴보면 전통적 조행록이 5종, 정치외교관들의 조행록이 6종, 商務, 여행가들의 조행록이 8종이다. 시기별로는 전통적 조행록 2종이 1722년, 2종이 1844

년과 1845년에, 마지막 1종이 1890년 기록이며, 그 외의 것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이 발생한 1882년과 1884년에 집중되어 있다.

방문자의 신분은 전통 사행록 5종이 모두 使行의 명을 받은 正使이며, 그 외는 정치외교관과 군인, 그리고 그들을 수행하고 왔던 막료들과 招商總局 관리들이고, 유일하게 여행을 목적으로 조선을 방문한 許午가 문인의 신분이었다. 이중에 동일인이 여러 종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으며, 작자 미상인 기록도 3종이 있다.

방문목적은 전통사행기록은 책봉례가 3회, 유제사 2회이며,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등 정치적 사건이 4회, 통상조약 체결이 1회이다. 특히 商務 관계 인원이 7회로 가장 많았고, 국토조사 목적이 1회, 여행이 1회이다.

내용 면에서 전통 사행록은 사행 일정과 예전, 접대, 조선 문인들과 나눈 창화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882년 이후 조행록들이 집중적으로 관찰 기록한 것은 조선의 사회제도와 서울 거리, 풍속, 시장 상황, 그리고 전국 주요 도시와 항구의 지형 및 지도 등이다. 특히 갑신정변과 청일전쟁 당시의 조행록은 국경지역과 주요 군사지역, 항구 등을 탐사한 보고서와 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636년부터 1880년까지 245년간 청에서 조선에 파견한 사행은 169회였는데⁶⁶⁾ 이들이 남긴 전통 사행록은 단지 5종에 불과하였다. 청에 파견되었던 조선 사행이 남긴 燕行錄이 무려 377종⁶⁷⁾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연행사의 파견 빈도⁶⁸⁾가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교가 안 되는 숫자이다. 이 5종의 조행록 중 1890년의 마지막 사행을 제외한 4종의 저자가 만주인과 몽고인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1882년과 1884년 사이에는 무려 13종의 조행록이 출간되었다. 이는 임오군란 발발과 미국, 독일 등과의 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조선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근대 국제법적으로 조선을 독립된 주권 국가로 간주하려는 서구 열강과 일본의 국제적 압력에 대하여 청은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이를 위해 청은 전통적 勅使의 禮典을 강조하면서 崇禮를 조문 칙사로 파견하여 이를 공개적으로 과시하였고, 승례는 이를 『奉使朝鮮日記』로 남기었다. 또한, 임오군란 등 정치적 목적으로 조선에 온 인물들이 이러한 조선 정책과 인식을 보여주기 위한 기록들을 대량으로 남기면서 조행록이 갑자

66) 全海宗, 『한중관계사연구』, 75쪽 참조.

67) 임기중, 『연행록연구』, 30쪽, 표 2 참조.

68) 全海宗, 같은 책 71쪽 표 2에 의하면, 1637년부터 1894년 까지 조선에서 파견한 사행은 507회이며, 연 평균 2.78회 사행이 이루어졌다.

기 증가한 것이다.

1882년 北洋大臣 李鴻章은 다음과 같은 상주문을 올렸다.

朝鮮은 우리나라의 가장 오랜 外藩으로, 실제로 東三省을 막아주는 병풍이다. 琉球처럼 해외에 떨어져있는 나라와는 형세가 완전히 다르다. 오늘 날 일본이 이미 琉球를 멸하였고, 프랑스가 또 越南을 점하여, 연해 六省이 모두 중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정세가 되었다. 가장 밀접한 藩屬은 바로 조선이다. … 東方의 안위가 대국과 밀접하다.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조선의 일을 대신하여 주장하지 말고, 이해관계상 休戚相關이니, 형세 변화에 따라 여러 방면에 협조 보호가 필요하다.⁶⁹⁾

‘休戚相關’,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한다는 이 표현은 청의 병풍 역할을 하고 있던 조선이 봉착한 위기가 바로 자신들의 위기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사대질서를 강요하고 종주권을 강화하면서, 그 안에서 조선을 울타리로 하여 자신을 방위하려했던 중국이 결국 축적된 모순 속에서 붕괴되어 나가던 현상이 바로 19세기의 조선이었다. 그 현장에 직접 참여하였던 중국인들이 남긴 조행록들이 이를 증언하고 있다. 조행록들이 보여주고 있는 매우 다층적이고 모순된 시각과 인식의 파편들은 바로 淸의 대조선 정책과 인식의 흐름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69) 趙爾巽 等撰, 같은 책, 14,600면. “臣維朝鮮久隸外藩, 實爲東三省屏蔽, 與琉球孤懸海外者形勢迥殊. 今日本既滅琉球, 法國又據越南, 沿海六省, 中國已有鞭長莫及之勢. 我藩屬之最親切者, 莫如朝鮮. … 東方安危, 大局所繫. 中朝卽不必顯爲主張, 而休戚相關, 亦不可不隨時維持, 多方調護.”

• 참고문헌

- 阿克敦編繪, 『奉使圖』, 北京民族圖書館藏(遼寧民族出版社, 1999).
- 阿克敦撰, 『德蔭堂集』 卷6 『東游記』, 嘉慶21년(1816)刊本.
- 花沙納, 『東行記程』, 清 光緒28년(1847)刻本.
- 柏蔭, 『薛綵吟館鈔存』, 清 道光24년(1844)刻本.
- 崇禮撰, 『奉使朝鮮日記』, 清 光緒年間活字本.
- 馬建忠撰, 『東行三錄』(上海書店 影印本, 1982).
- 朱銘盤撰, 『桂之華軒遺集』, 清光緒年間刻本.
- 薛培榕撰 『東藩紀要』, 上海申報館叢書本, 清 光緒8년(1882).
- 周家祿撰, 『奧簞朝鮮三鐘』, 清光緒年間刻本.
- 聶士成撰, 『東游紀程』, 光緒21년(1895), 石印本.
- 吳大澂, 『皇華紀程』, 殷禮在斯堂叢書, (東方學會鉛印暨石印本, 1928년), 第7冊.
- 吳鍾史, 『東游記』·『游高麗王城記』, 『朝鮮風土述』, 『高麗形勢』, 王錫祺編, 『小方壺齋輿地叢鈔』, 上海著易堂排印本, 光緒17년(1891).
- 작가 미상, 『入高記程』, 王錫祺編, 『小方壺齋輿地叢鈔』, 第10帙.
- 작가 미상, 『朝鮮風土記』, 王錫祺編, 『小方壺齋輿地叢鈔』, 10帙.
- 작가 미상, 『高麗瑣記』, 王錫祺編, 『小方壺齋輿地叢鈔』, 10帙.
- 許午, 『朝鮮雜述』, 王錫祺編, 『小方壺齋輿地叢鈔』, 10帙.
- 趙爾等撰, 『清史稿』(北京: 中華書局, 1997).
- 전해중, 『한중관계사연구』(일조각, 1970).
- 임기중, 『연행록연구』(서울: 일지사, 2006).
- 김한규, 『한중관계사』(아르케, 1999).
- 김중원·이양자, 『조선후기 대외관계 연구』(한울, 2009).
- 구범진, 『19세기 전반 淸人の 朝鮮使行』, 『사림』22호(2004).
- 黃有福, 『奉使圖成書始末』, 『亞細亞文化研究』 제4집(2000).
- 김성남, 『19세기 말 중국인들의 조선 기행 저술 연구』, 진재교 외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속의 한국』(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4).

The Joseon Visit Report written by Chinese of Qing Dynasty

Kim, Sung-Nam

This paper reviews 19 Joseon visit Report written by Chinese of Qing Dynasty era. It also examines how they have been passed on to the current generations and what their characteristics are.

The Joseon visit Report of Qing Dynasty era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first is traditional delegation Report. The second is written by diplomats and military personnel in order to correspond to occurrence of important political events in the late of 19th century. The third is merchant and traveler's record of personal experience since the opening of port.

When the Qing Dynasty era was written only the 5 Joseon visit Report by the traditional delegates, but between 1882 and 1884 as many as 15 Reports have been published. For LimOh military rebellion and political purposes, market research increased visitors, their Reports are showing the process of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the Qing Dynasty,

Key Words: Joseon Visit Report, Qing Dynasty, Traveler's Journal by Chinese, Traditional Delegation Report, YonHang Report, Korean-Chinese relations, LimOh Military Rebellion, Gahbshin Political Rebellion

필자 E-Mail : chengkim@hanmail.net (김성남)

투고일 : 2010년 7월 23일/ 심사완료일: 2010년 8월 18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20일